일자리 TF
23-11-3
(공개)

고용 현안 및 이슈

2023. 11. 21.

관 계 기 관 합 동

고용 현안 및 이슈 [요약]

1.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 [고용부]

□ **(현황) 고령자**(60세 이상) 고용은 **경제활동참여 확대** 등으로 **지속 증가**
('23.1~10월 평균(전년비): <취업자> +38.2만명, <60세+ 인구> +51.1만명, <고용률> +1.1%p)

* 60세이상 고용률(%): ('10) 36.2 ('15) 39.0 ('20) 42.4 ('22) 44.5 <'23.1-10월 평균> 45.6

□ **(특징) 고령 취업자**는 **상용직 중심**으로 **다양한 산업**에서 고루 **증가**, **60대**는 **민간일자리**(제조업 등) 중심, **70세 이상**은 **보건복지업**(임시직) 중심

* 지위별 증감(만명): [상용] +21.3 [임시] +9.4 [자영] +8.9

* 60대 初(+11.5만명)는 제조, 60대 後(+13.1만명)는 도소매, 숙박음식, 보건복지(상용직, +2.8만), 70세 이상(+13.5만)은 보건복지(임시직, +3.3만) 중심 증가

○ **고령 취업자 증가** 중 **민간 일자리 기여**는 **확대**되는 **추세**

* 고령층 취업자 증가분 中 공공분야(보건복지공공&임시직 중 일부) 外 민간일자리 기여분 추산치(만명): [60세 이상(+38.2만명)] +33.8만명 <'17년 78.8% → '23년 88.6%> [70세 이상(+13.5만)] +9.5만명 <48.9% → 70.6%>

□ **(시사점)** 일을 원하는 고령층 및 **시간제 선호 비중** 증가
→ **다양한 산업군**으로의 진출 지원 **+ 유연한 일자리 창출지원 필요**

* 장래 근로희망 비중(60~79세, '17년→'23년): 54.5% → 63.4%, 시간제 희망 비중: 42.8% → 53.1%

2. 중국 방한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[문광연]

□ **(규모) 중국 방한관광객**은 **9월 26.4만명**을 기록하여 '19년의 **48.8%** **수준** 회복 → **現 추세 지속시** '23년 연간 누적 약 **200만명** 전망

* 중국 방한관광객 추이(만명) : ('23.1)2.5 (2)4.6 (3)7.3 (4)10.6 (5)12.8 (6)16.8 (7)22.5 (8)26.0 (9)26.4

○ **단체관광 재개**에 따라 **중추절·국경절**(9.29~10.6일) 연휴 기간 단체 관광객은 **증가**했으나, 단체관광 **본격화**에는 **일정기간 소요** 예상

□ **(취업유발효과) 소비지출** 및 **취업탄력성** 고려하여 추정한 **'23년 중국 방한관광객**(200만명 내외)의 **취업유발효과**는 약 **6.6~7.9만명**

※ 중국 방한관광객의 소비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관광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환산 노동력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분을 의미하지 않음

○ 소비패턴 상 **도소매·숙박음식업** 등 **대면서비스업 중심**으로 **효과** 有

□ **(시사점)** 「**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**(9.4, 비경)」 적극 추진
→ **일자리 창출**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**추가 지원방안** 지속 마련

1.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(고용노동부)

◈ **고령 취업자 증가**는 **다양한 산업·직업** 등에서 고루 나타나나, **세부 연령대별**로 **상이**(60대는 제조·도소매 등 민간일자리, 70세 이상은 보건복지업), **민간일자리 기여**는 **확대**되는 추세

□ **(현황) 고령자**(60세 이상) **고용**은 인구고령화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**지속 증가**('23.1~10월 평균(전년비): <취업자> +38.2만명, <60세+ 인구> +51.1만명, <고용률> +1.1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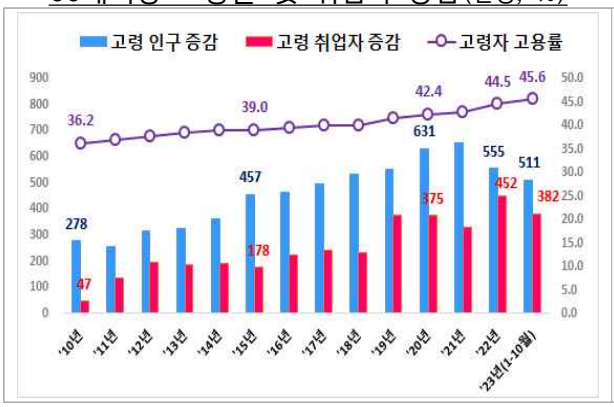
* 60세이상 고용률(%): ('10) 36.2 ('15) 39.0 ('20) 42.4 ('22) 44.5 <'23.1-10월 평균> 45.6

□ **(특징) 고령 취업자** 증가는 **다양한 산업·직업**에서 **고루** 나타나고 있으며, 특히, **상용직, 36시간이상**에서의 **증가**도 두드러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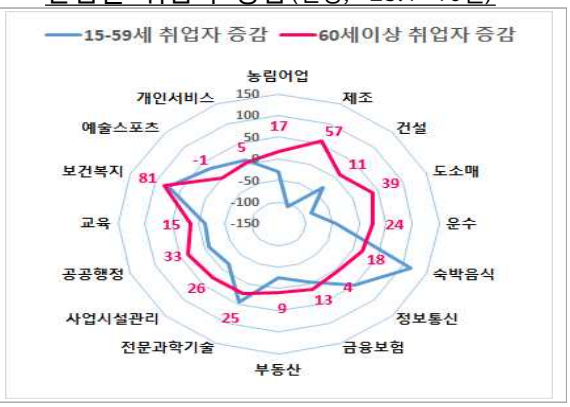
○ **(산업) 보건복지**(+8.1만, 70세 이상, 서비스직, 여성), **제조**(+5.7만, 60대초반, 생산직, 남성), **도소매**(+3.9만, 60대후반, 여성) 등 **산업 전반**에서 **고루 증가**

* 보건복지는 60대이상/미만 모두 증가, 제조·도소매·건설은 60대미만은 감소하나 60세이상 증가

60세이상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감(천명, %)



산업별 취업자 증감(천명, '23.1~10월)



○ **(종사상지위) 상용직**(+21.3만명, 보건복지, 제조, 도소매) **증가**가 **가장 크나**(55.9%), 임시직(+9.4만명, 공공, 보건복지, 사업시설) 및 자영업자 등(+8.9만명)도 증가

○ **(취업시간) 36시간 이상자**(+36.9만명, 제조, 도소매, 운수)가 **큰 폭 증가**하고, 36시간 미만에서 소폭 증가(+1.3만명, 보건복지, 농림어업)

* 다만, 36시간미만 취업자의 다수(90.8%,+1.4%p)가 '계속 그대로 근무'를 희망

○ **(직업) 전문직**(+9.3만), **서비스직**(+7.4만), **사무직**(+4.3만) 등 **고루 증가**

□ **(세부 연령대별) 60대**는 **제조, 도소매, 보건복지**(상용직) 등 **민간일자리** 중심 증가, **70세 이상**은 **보건복지업**(임시직) 중심 증가

○ **60대초반**(+11.5만)은 제조, **60대후반**(+13.1만)은 도소매, 숙박음식, 보건복지(상용직, +2.8만), **70세 이상**(+13.5만)은 보건복지(임시직, +3.3만) 증가

60세이상 취업자 증감 : 상위10개 산업(천명, '23.1-10월 평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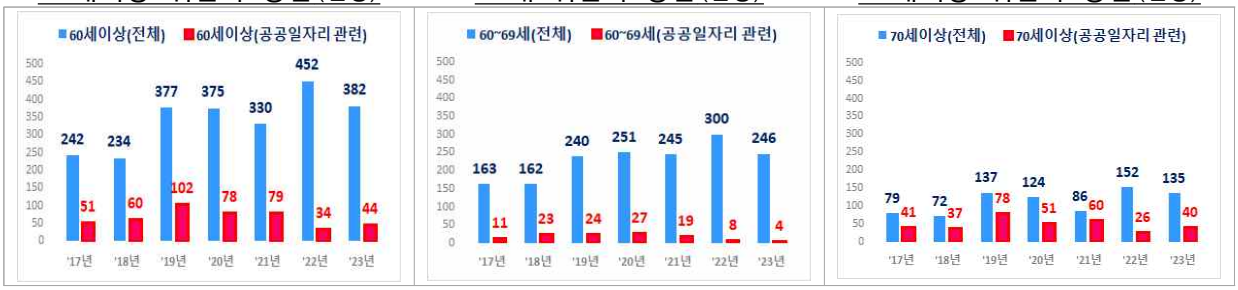
	전체	보건복지	제조	도소매	공공행정	사업시설	전문과학기술	운수	숙박음식	농림어업	교육
60세이상	382	81	57	39	33	26	25	24	18	17	15
60~64	115	12	39	8	14	10	14	13	-16	-8	18
65~69	131	23	16	27	11	0	9	8	24	11	2
70+	135	46	2	3	8	16	3	4	10	15	-6

□ **(민간·공공) 취업자 증가 중 공공일자리 外 민간일자리 기여는 확대 추세**

* **60세이상** 취업자 증가(+38.2만명) 중 공공일자리 분야 추산치(보건복지·공공&임시직 중 일부) 이외에서 33.8만명 증가, **민간 부분 기여**는 **확대** 추세('17년 78.8%→ '23년 88.6%)

↳70세이상 취업자 증가(+13.5만) 중 민간 기여분도 확대(+9.5만명) <48.9%→ 70.6%>

60세이상 취업자 증감(천명) 60대 취업자 증감(천명) 70세이상 취업자 증감(천명)



□ **(국제비교) 65세이상 고용률**은 **매우 높으나, 55~64세 고용률**(68.8%)은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(73.3%), 일본(78.1%) 등 **주요 선진국 대비 낮고,**

* 65세이상 고용률('22년): 한국 36.2%, OECD 38개국 중 1위 / 55~64세 고용률: 68.8%, 16위

○ **고령자의 일자리 구조**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일찍 겪은 **일본**보다 **농림어업·보건복지업** 비중이 **높고, 제조·건설·도소매** 비중이 **낮은 편**

OECD 65세이상 인구 및 보건복지비중(%) 한국 및 일본: 고령 취업자의 산업(%, '22년)



☞ **(시사점) 일을 원하는 고령층이 증가**하는 상황에서, **베이비붐 세대**('25년 70대 진입)들이 **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**할 수 있게 **지원**하고,

○ **시간제 선호 비중**이 늘고 있어 **유연한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**

* 장래 근로희망 비중(60~79세, '17년→'23년): 54.5%→ 63.4%, 시간제 희망 비중: 42.8%→ 53.1%

2 중국 방한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(한국문화관광연구원)

1 (현황) 중국 방한관광객은 9月 '19년 48.8% 수준 회복 + 지속 회복 중

○ (회복수준) 중국 방한관광객은 '23.9월 **26.4만명**을 기록하여 **코로나 이전**인 '19년의 **약 48.8%**(9월 기준) 수준 회복('23.1-9월 누계 129.5만명)

* 중국 방한관광객 추이(만명) : ('23.1)2.5 (2)4.6 (3)7.3 (4)10.6 (5)12.8 (6)16.8 (7)22.5 (8)26.0 (9)26.4

- (비중) **전체 관광객 중 비중** 회복도 상당('23.9월 24.0%, '19년 34.4%)
- (단체) **한한령**('17.3월) 이후 6년 반만의 **단체관광** 재개(8.10일)에 따라 **9월 단체관광객**은 **1.3만명**(관광비자기준)으로 8월(0.2만명) 대비 **확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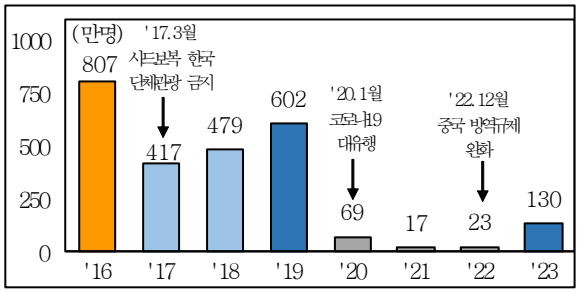
* 중국방한객 단체관광비자(만명): ('16.7)28.4 (8)25.1 (9)13.3 … ('23.7)0.1 (8)0.2 (9)1.3

중국 방한관광객 추이

구분	'19	'20	'21	'22	'23.上	7월	8월	9월	1-9월
전체(만명)	1,750.3	251.9	96.7	319.8	443.1	103.2	108.9	109.8	765.0
중국(만명)	602.3	68.6	17.0	22.7	54.6	22.5	26.0	26.4	129.5
비중(%)	(34.4)	(27.3)	(17.6)	(7.1)	(12.3)	(21.8)	(23.8)	(24.0)	(16.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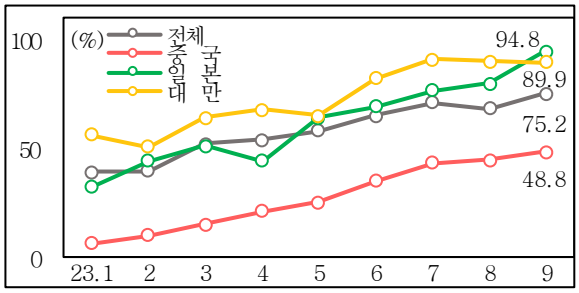
○ (회복속도) 중국 방한관광은 **'23년부터 회복**이 **시작**되어 다른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나, **시간 경과**에 따라 **지속적**으로 **회복** 중

중국 방한관광객 추이(만명)



* 출처: 중소벤처기업연구원

외국 방한객 국적별 회복률('19년 동월 대비, %)



* 출처: 관광지식정보시스템

2 (전망) '23년 중국 방한관광객 약 200만명 전망, 단체관광 본격화는 시간 소요

○ 現 추세 지속시 **'23년** 중국 **방한관광객** 연간 누적 **약 200만명** 전망

* '23년 中 관광객 年 200만명 목표(「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」, 9.4, 비경)

○ **중추절·국경절 연휴 기간**(9.29~10.6일) 단체관광객은 증가했으나, 여행행태 변화 등으로 **단체관광 본격화**는 **일정 기간 소요** 예상

* ①개별관광 선호, ②그간 한국 물가 상승에도 불구, 한한령 이전('16년)가격의 여행상품 선호 등 관련 한중 관광업계 시장 적응 필요

3 (취업유발효과) '23년 200만명 내외 유입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약 6.6~7.9만명 추정, 소비패턴 등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중심 효과

※ 중국 방한관광객의 소비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관광 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환산 노동력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분을 의미하지 않음

○ **중국 방한관광객**의 **소비지출** 및 **취업탄력성**을 **고려**하여 **추정**한 '23년 중국 방한관광객의 **취업유발효과**는 약 **6.6~7.9만명**【p.6 참고】

○ 중국 방한관광객의 **지출 규모** 및 **주요 지출부문** 등 고려시 **도소매업, 숙박음식업** 등 **대면서비스업** 중심으로 **효과** 有

소비지출 방식상의 업종별 취업유발효과

구분	도소매	숙박음식	운수창고	기타	전체
취업유발효과(만명)	3.2	2.4	0.4	0.6	6.6
비중(%)	48.6	37.0	5.5	8.9	100.0

▪ 다만, 관광을 통한 취업유발 효과는 **일정기간 소요**(소비 증가 → 매출 상승 → 고용 증가), **경기상황** 등에 따라 **변동 가능**

☞ **(시사점) 중국 방한관광객 증가**는 **대면서비스업** 취업자수 증가에 기여, **'24년 양호한 고용 흐름**을 위해 **중국 관광객 유치전략** 적극 추진

○ 관광객 확대가 국내 경기 활성화 및 **일자리 창출**로 연계될 수 있도록 **추가 지원방안** 지속 마련

* 맞춤형 관광인재육성, 관광인력양성 기반 조성, 관광산업 구인-구직 연계 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속 추진 등

※ **<참고> 최근 정부 추진정책**

○ 입국·쇼핑 등 **관광편의성 제고, 맞춤형 관광상품 마케팅, 인프라 강화** 등 「**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**(9.4, 비경)」 추진

- **(비자·쇼핑) 비자 수수료** 혜택*, **항공편 확대** 등 **입국 편의**를 **제고**하고 **모바일페이 가맹점 확대, 면세 절차 간소화** 등 **쇼핑 지원 강화**

*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수수료 한시 면제(~12월) 등

- **(콘텐츠)** 최근 소비패턴 변화* 등 고려하여 **K-컬처 연계 관광 프로그램** 적극 **홍보** 및 **고부가가치 관광상품**(MICE 등) **지원 확대**

* 80년대 이후 세대 주도 쇼핑·명소 중심 → 맛집, 지역관광 등 체험 중심 수요 증가(중소벤처기업연구원, '23.9월)

참 고 **중국 방한관광객 취업유발효과 계산방식 상세**

방법	취업유발효과	사용통계
소비지출 취업유발효과	6.6만명	외래관광객조사, 출입국통계, 산업연관표
탄력성 취업유발효과	7.9만명	지역별고용조사, 출입국통계

1 소비지출 취업유발효과

○ (세부방법) **중국 방한관광객 소비지출**을 바탕으로 **산업연관분석 전체 취업유발효과**에서 **간접취업효과 제외**(직접기여만 별도 추정)하여 산출

* 관광 분야는 자가고용, 프리랜서 등이 많아 취업자 분석이 적절
→ '고용자'는 임금 노동자, '취업자'는 고용자 + 고용주, 자영업자(프리랜서) 등 포함

○ (**지출규모**) 외래관광객조사의 **중국 방한관광객 소비지출**을 사용하여 추정

중국 방한관광객 지출부문 및 금액

통합소분류	외래관광객조사 지출부문	금액($)
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	식재료비, 쇼핑비	1,127.35
철도운송서비스	국내교통 철도여객	27.04
도로운송서비스	국내교통 도로여객	69.01
수상운송서비스	국내교통 수상여객	5.76
항공운송서비스	국제교통·국내교통 국적기	96.64
음식점 및 주점	음식점 지출비	482.57
숙박서비스	숙박비	450.32
유, 무선 및 위성통신서비스	데이터 통신비	17.34
의료 및 보건	치료 및 건강검진비	102.01
문화 및 여행 관련 서비스	여행사 지불비·가이드비·문화서비스	41.58
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	오락 및 운동	22.03
개인서비스	미용서비스	30.15
합계		2,471.80

* 실제 분석은 소비지출을 물가수준으로 조정한 실질금액 사용

➡ (**취업유발효과**) **6.6만명** = 9.9만명(전체 취업유발효과) - 3.3만명(간접취업효과)

2 취업탄력성 취업유발효과

○ (**세부방법**) **'22.下~'23.上** 동안 **실제 방한관광객** 증가와 **관련산업취업자*** 증가간의 **관계(탄력성)** 도출 → **방한관광객 200만명** 증가시 취업자수 추정

* 관광관련산업: 지역별고용조사 상의 운송업, 음식점 및 주점업, 숙박업, 개인 서비스업 등 유관산업

○ (**취업탄력성**) 방한관광객 **1,000명↑** ⇒ 취업자 **약 39.7명↑**(≈1000×A÷B)*

* 관광객 천명당 취업탄력성 39.6975 ≈ 1,000,000 × 81.1천명 ÷ 2,042,951명

방한관광객 증가 대비 관광관련산업 취업자 증가 : 취업탄력성

변수	'22년 하반기	'23년 상반기	차이
관광관련산업 취업자(만명)	715.1	723.2	8.1 (A)
반기별 방한관광객(만명)	238.8	443.1	204.3 (B)

➡ (**취업유발효과**) **7.9만명** = 397 × 200만명('23년 中관광객 시나리오 상한)